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뉴리더 ‘부산외국어대학교’

서 의 택 | 부산외대 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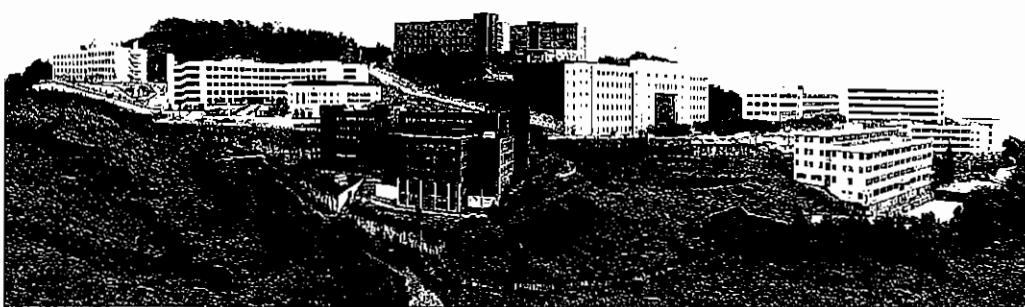
외국어 교육의 맥락

부산외국어대학교는 학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어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종합대학교로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급속히 신장하던 1982년에 ‘외국어와 외국 문화에 정통한 국제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목표 하에 한국의 세계화를 주도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인가되어 설립된 특수목적대학교이다.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이러한 정책 목적에 부응하여 도덕성·탐구성·전문성을 겸비한 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핵심 교육 과제로 설정하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21세기 세계화·개방화·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유능한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 동안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

개교 당시 10개 학과로 시작한 부산외국어대학교는 현재 동·서양어 대학 등 5개 단과대학에 총 32개학과, 입학 정원 2,250명의 명실상부한 특성화되고 차별화 된 종합대학으로, 외국어 교육과 국제지역학 연구분야에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강점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부산외국어대학교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 전문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부산·경남 세계화의 중핵 대학으로 발전해 왔다.





세계화·정보화 교육의 새로운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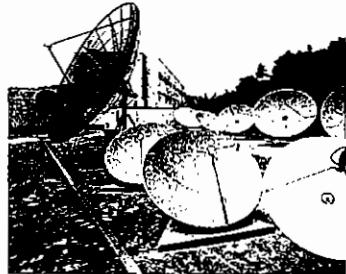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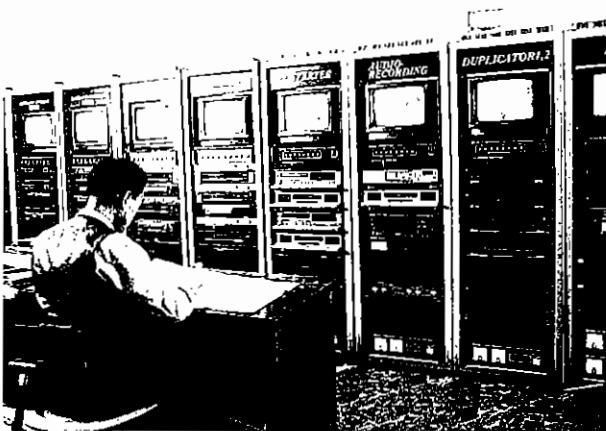
부산외국어대학교가 양성하고자 하는 국제 전문 인력은 외국어 능력을 토대로 하여 정보처리 능력, 국가간의 통상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여 졸업 후 국제 무대에 스스로 적응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회 창출, 문제해결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고 있는 인력을 말한다. 특히 부산외국어대학교가 자체 개발한 GLE(Globalized & Localized Experts) 양성 프로그램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슬로건인 “세계화된 열린 사고와 현지화된 행동(Think Globally & Act Locally)”을 구현할 수 있는 대학교육의 새로운 모델로서 인정받고 있다. 그 결과 교육부로부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97년 국제 전문인력 양성 국책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98년과 '99년에 실시된 국책 대학 중간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대학으로 평가받음으로써 국제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자리 매김을 확고히 하고 있다.

부산외국어대학교는 또한 외국어대학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보화 교육을 강화시키며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요람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부로부터 2000년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대학, 2001년 정보통신관련학과 장비 지원 사업 대학으로 선정되어, 재정 지원을 받음으로써 인터넷과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인력 육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미래의 사회는 외국어 능력과 정보처리 능력이 겸비되어야만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외국어 교육을 바탕으로 정보처리 교육을 의무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도록 하고 있다.

아마 이러한 이유로 내·외부로부터 교육의 질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부산외국어대학교 졸업생의 취업, 특히 해외 취업이 최근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IMF라는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예년에 못지 않은 80% 이상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외국어+그 나라에 대한 지식+국제 통상 지식+정보처리 능력’이 결합된 부산외국어대학교만의 차별화 된 교육이 개방화·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과 열린교육의 구현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진정한 국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사랑과 열린교육의 구현에도 힘쓰고 있다. 국내외의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공동체의 가치를 실천하여, 사랑과 봉사정신에 토대를 둔 올바른 인성을 길리 도덕성과 전문성,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요람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

또한 학생 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열린 교육의 구현에 앞장서서 한국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세계화된 열린 사고와 현지화 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인재! 다학문적, 다문화적 지식을 겸비하고, 세계를 무대로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세계를 품는 한국인! 이는 바로 부산외국어대학교가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의 모습이다.

최고의 국제 전문인력 양성 대학

앞으로도 부산외국어대학교는 국제사회를 경쟁 무

대로 하여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유창한 외국어 구사능력과 뛰어난 현지 감각, 국제통상 전문지식, 첨단정보기술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국제 전문인력)를 양성하여 아시아 지역 최고의 국제 전문인력 양성 대학으로 발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외국어대학교는 16개 외국어학과 전용 멀티미디어랩실, 18개국 43채널의 위성방송 시스템, 25% 이상의 외국인 교수를 포함한 홀륭한 교수진, 세계 유수 대학과의 실질적인 교류, 500명 신입생의 해외 언어 연수, 전 구성원에 대한 ID 부여 등과 같은 첨단 교육시설과 우수한 교수진, 그리고 열린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모든 학생들이 졸업 후 국제무대에 적응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거점 대학으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고의 외국어 교육과 지역학 연구 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크게는 21세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국제화된 고급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국제 전문인력 양성 대학, 작게는 부산·경남 지역의 세계화의 거점 대학이라는 지역사회의 중추 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며, 한국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